

3월 25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3월 25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 증시 `숨고르기` [다우: 7,660.21pt (-1.49%)]	미국 재무부의 부실자산 해소안 효과에 대한 논란 속에서 전날 7%에 가까운 폭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졌음. 부실자산 해소안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과 이번 랠리 역시 `베어마켓 랠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투자심리를 짓눌렀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부실자산 해소안에 대해 "정부가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민간 투자자들을 끌어들이 부실자산을 해소하는 것은 일방향적인 베팅"이라고 지적했고,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도 "대국민 강도짓"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음.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과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의회 증언을 통해 금융권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금융주에 부담이 됐음.
버냉키·가이트너, AIG 發 규제강화 `한 목소리`	버냉키 의장과 가이트너 장관은 이날 의회 증언을 통해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권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음. 가이트너 장관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열린 AIG 청문회에 참석, "금융기관들의 위험하고 무절제한 투자가 경제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시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버냉키 의장은 "AIG와 같이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커서 파산을 방지할 수 없는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마불사`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새로운 청산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음.
유가 소폭 상승 [WTI: \$53.98 (+ \$0.18)]	국제 유가는 경기 및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와 재고 증가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면서 등락을 거듭한 끝에 소폭 상승세로 마쳤음.
HSBC, 1,000명 추가 감원	블룸버그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영국 내 직원 약 1,000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보도. HSBC는 지난해 9월 1,100명을 감원한 데 이어 11월에도 영국 내 직원 약 500명을 해고.
한-EU FTA 사실상 타 결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자동차를 비롯해 모든 공산품에 대해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하는 등 유럽과의 수출과 수입은 크게 늘어날 전망. 하지만 완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수입한 부품에 대해서 관세를 돌려주는 '관세환급제도'를 놓고는 합의 중. 일본과 미국의 제품이 유럽에서 관세를 돌려받는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게도 이 제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협상단의 입장.

제목	주요 내용
러시아 국영기업 10년 만에 첫 디폴트 선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 항공기 금융리스사 파이낸스리싱코(FLC)가 지난해 12월 2억 5,000만달러 규모의 채권에 대해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했다고 보도. 러시아 은행은 물론 미국, 영국 유럽의 은행, 기관 투자자, 헤지펀드 등이 이 펀드에 투자. 러시아 국영 기업이 외채 디폴트를 선언한 것은 1998년 루블화 위기 이후 처음.
중국, 19개월래 최장 기간 상승	24일 중국 증시가 19개월래 최장 기간 상승세를 나타내며 벌써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국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더 많은 대출에 나서야한다고 밝힌 점이 호재로 작용.
소비심리지수 석달 만에 하락	한국은행이 전국 2,124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25일 발표한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생활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심리지수(CSI)는 84로, 전달보다 1포인트 하락. 이 지수는 작년 12월에 81로, 1998년 4분기(80)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올해 1월(84), 2월(85) 두 달 연속 소폭 상승했으나 다시 하락세로 꺾였음.
위기의 조선업 정부에 도움요청	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조선협회와 조선업계는 최근 정부에 현금 유동성 확보 어려움을 토로하며 국책은행과 수출보험공사를 통한 지원확대를 요청. 업계가 정부에 타진한 지원방안은 먼저 수출입은행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임. 선박을 발주하는 선주들이 계약을 취소, 연기하지 않도록 하려면 올해 1조 5,000억원인 선박금융 승인금액을 추가로 늘려야 하며 조선사들에 공급되는 제작금융의 올해 집행목표액도 현재의 1조 6,000억원에서 더 늘려야 한다는 게 업계의 요청.
"추경, 어려움 극복 모멘텀 희망"	윤 장관은 24일 정부의 추경안 확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고 차질없이 집행될 경우 1.5%p 내외의 성장률 제고와 55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며 "이와 함께 규제완화와 민간투자 확대가 같이 추진될 경우에는 2%p 수준의 성장률 제고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